

사기의 유형과 통계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범죄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은 사기 피해자였다. 범죄 피해자 수 약 175만명 가운데 38%가 사기 피해자로 불과 5년 전만 해도 19%였던 수준이 두 배로 뛰었다. 그만큼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다른 범죄(폭력·절도 등)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기는 홀로 급증해 이제는 범죄 피해의 중심축이 사기로 이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액 규모를 보면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2024년 한 해 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27조7602억원으로 전년보다 50%나 급증했다. 전체 범죄로 인한 피해액 가운데 77%가 사기 피해액일 정도로 경제범죄 피해의 대부분이 사기와 직결돼 있다. 이제 사기 범죄는 개인의 불운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사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여러 배경이 있다. 디지털화와 조직화를 통해 사기 범들이 더 넓은 표적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 큰 요인이다. 실제로 검거된 사기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공범이 10

명 이상 연계된 대규모 조직형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한 예로 공범 11명 이상이 적발된 사기 사건이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나 작년에는 2383건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같은 각본 있는 조직사기가 과거보다 흔해졌다. 범죄 수법이 디지털화·익명화되면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늘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이메일 사기나 암호화페를 통한 자금 세탁 처럼 첨단 기술로 자신의 흔적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졌다.

사기 피해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의 선입견과 다른 점도 있다. 많은 사람이 ‘사기는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령대별 피해 통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전체적으로 피해액 규모는 4050대 중장년층이 크고, 노년층의 1인당 피해액도 큰 편이다. 그런데 젊은층도 적지 않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 놀라게도 20대 이하 청년층 피해자가 가장 많다는 분석도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4%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에서는 5060대 피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사기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 풀도 다양하다. 젊은층이라고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통계가 보여 준다.

연령뿐 아니라 학력이나 지능도 사기 피해와 큰 상관이 없다. 경찰 수사 사례를 보면 박사 학위자, 전문직 종사자들도 사기 피해자가 되곤 한다. 심지어 경제·금융 분야 종사자나 전문 변호사조차 투자 사기에 속는 경우도 있다. 사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 통계에 나타난 주요 사기 범죄의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인터넷 거래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진화를 거듭해 여러 하위 유형으로 갈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000억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단속 강화로 2020~2022년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에 다시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급증했다. 이는 사기범들이 새로운 수법(메신저 피싱 등)으로 재차 공격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 사기의 경우 암호화폐 열풍과 맞물려 유사 암호화폐 투자나 가상자산 관련 다단계 사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기 시도는 일상화되어가고 피해 통계는 해마다 갱신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숫자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 미리 조심하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최고’보다 ‘적당히 좋은 것’이 팔린다



김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을 찾던 시대가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부터 자동차 배터리, 주식 투자까지 ‘최고 성능’보다는 내가 필요한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비용 부담은 낮은 선택지가 주목받고 있다. 기술과 자본의 영역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AI 시장에서는 최첨단 모델만이 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고성능 폐쇄형 모델에 비해 비용 부담이 낮고 직접 수정·활용할 수 있는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다. 실제로 오픈 모델과 최상위 폐쇄형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업

무 성격에 따라 비싼 프런티어(고성능) 모델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픈 모델을 나눠 쓰고 있다.

배터리 시장에서도 높은 에너지 밀도를 앞세운 니켈계 배터리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LFP는 세계 EV 배터리의 55% 이상을 차지했으며, 평균 팩 가격은 니켈-망간-코발트(NMC) 계열보다 40% 이상 저렴했다.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종목이나 업종에 필요한 만큼만 투자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297조원에서 올해

6월 말 512조원으로 215조원, 72.3%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를 넘어섰다.

눈에 띄는 것은 ETF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을 일일이 고르는 대신 하나의 ETF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도체 협업을 좋게 본다면 반도체 ETF를 통해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비중을 높은 상품을 통해 특정 종목주가 상승에 집중할 수도 있다. ‘주식을 사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시장의 일부를 사는 것’으로 투자 방식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세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가장 좋은 것’을 사는 대신 ‘충분히 좋은 것’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최고 성능 자체가 아니라 성능과 가격 사이에서 얼마나 좋은 균형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1일 (음 8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발전일로에 들어 섰습니다. 60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2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84년생 뒷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49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1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73년생 주변의 말에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세요. 85년생 이성과의 즐거운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50년생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됩니다. 62년생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으니 신중하세요. 74년생 번역이 심한 상대를 각별히 주의하세요. 86년생 적당한 선에서 원만히 타협하세요.



51년생 흑백을 가리키는 힘듭니다. 63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가세요. 75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87년생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기 힘든 하루입니다.



52년생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64년생 소리를 거스르거나 역행하지 마세요. 76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88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다소 빈곤합니다.



53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65년생 아무 근심 없이 하루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77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89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합니다.



54년생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66년생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78년생 일보다는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90년생 큰 일을 위해 작은 손실은 감수하세요.



55년생 중심이 되어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67년생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호전됩니다. 79년생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니 한결 수월합니다. 91년생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으니 때를 기다리세요.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의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세요. 69년생 뒷사람의 말을 잘 새기세요. 81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금전운이 좋으나 방심하지 마세요.



58년생 남의 눈을 의식해서 노력한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70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세요. 82년생 다른 사람의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세요. 94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5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71년생 아직은 실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 합시다. 95년생 친구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상회의四季 K-컬처 명리학

K컬처 바람을 타고 얼마 전에 신도이자 통번역 일을 하는 고객이 조금 색다른 손님과 필자의 월광시를 방문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매력을 느껴 찾아왔다는 미국인 여성 관광객이었다. 미국인 손님이 한국을 찾은 목적 중 하나는 최근 무속, 사주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큰 호기심을 느꼈다고 한다. 낮은 동양의 명리학이 신비롭고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다가간 셈이다. 실제 최근 사주명리를 포함한 한국의 무속과 점술 문화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등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사주를 체험하고 싶어 한국을 찾아오곤 한다. 운명에 관한 관심은 동양과 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앞날을 궁금해한다.

서양에서는 별자리나 타로, 심리검사를 통해 운명의 길을 알아보려 하고, 동양에서는 사주학, 점법을 통해 삶의 흐름을 살펴본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나의 운명은 어떤 길을 걷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궁금증이다.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까지 다양한 세대가 찾아온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사주를 보고 싶어도 자신의 운명과 미래가 궁금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사회적, 종교적 시선 때문에 설통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인지 누구든 일이 궁금하면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로 바뀌었다. K팝 K드라마처럼 사주명리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